

금남로·광천동·봉선지구·나주 혁신도시 4개 상권 분석해보니

광천동·금남로 20대 남·여... 봉선동 40대 여가 '큰 손'

광천동, 20대 男 매출 비중 32.3%·금남로는 女 17.7% 차지
 공기업 직원 많은 나주 혁신도시 25~34세 남성이 주고객
 구매 높은 요일, 광천동·봉선동 土·금남로 火·혁신도시 金 '제각각'

㈜광주신세계·이마트 광주점 등 쇼핑공간이 몰린 광천동 상권은 20대 남성이 주 고객층이었고, 봉선지구에서는 40대 여성이 '큰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권역은 55세 이상 남성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지만 2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이었다. 기러기 가족이 많은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25세~34세 남성 소비가 컸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광주일보가 KB부동산 상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광주·전남 주요 상권 4곳 '상권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이들 상권은 ㈜광주신세계, 이마트 광주점, 금호월드,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를 포함한

'광천동' (서구) 상권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반도전자도매상가, 금남전자상가, 광주은행 본점을 아우르는 '금남로4가역' (동구), 이마트 봉선점과 인근 식당 거리를 에워싼 '봉선지구' (남구) 등이다. KB 상가정보 시스템은 매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상권 위주로 추정매출, 소비고객 통계, 유동인구 정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상권은 빛가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반경 700m 구역을 분석했다. 먼저 광천동 상권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46만5614명이 카드 구매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 15만313명이 이곳에서 구매를 하며 32.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남성에 이어서는 30대 남성 8.4%(3만 8939명), 40대 여성 5.5%(2만567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유동인구는 79만8740명이었는데, 이용고객 통계와 달리 유동인구는 55세 이상 남성이 13.1%로 가장 많았다. 유동인구는 25세~34세 여성(10.6%), 45세~54세 남성(10.3%) 순으로 많았다. 일주일 중 구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요일은 토요일(10만4378명·22.4%)이었다. 이어 금요일(18.5%), 일요일(16.8%), 목요일(13.0%), 월요일(10.1%), 화요일(9.8%), 수요일(9.5%)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간대는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 28.5%, 저녁(오후 5시~밤 9시) 18.8%, 야간(밤 9시~새벽 1시) 4.2% 순으로 많았다. 금남로4가역 상권에서는 지난 10월 20만1430명이 지갑을 열었다. 이곳에는 55세 이상 남성

(18.6%)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지만 최다 고객층은 20대 여성(17.7%·3만5697명)이었다. 주 고객층은 20대 여성, 30대 남성(10.5%), 60세 이상 여성(8.4%) 순으로 많았다. 전체 구매의 3분의 1(33.1%)은 점심시간에 몰리고 저녁 12.7%, 야간 5.4% 순으로 비중을 나타냈다. 이 구역에서는 화요일 구매가 16.3%(3만2877명)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16.0%), 수요일(15.6%), 목요일(15.3%), 금요일(15.1%), 토요일(13.7%), 일요일(8.0%)이 뒤를 이었다. 봉선지구 상권에서는 40대 여성 고객이 1만 6394명으로 전체 구매자(10만8373명)의 15.1%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20대 여성(12.5%), 30대 여성(11.1%) 순으로 구매고객이 많았다. 유동인구 역시 40대 여성(14.0%), 60세 이상 여성(9.7%), 50대 여성(8.7%) 순으로 비슷한 유형을 나타냈다. 퇴근길 수요가 많은 이 상권에서는 점심과 저녁

구매시간대 비중이 각 23.1%와 23.2%로 동일했다. 봉선지구 주민들은 토요일(20.7%·2만2436명)에 가장 많이 구매를 했다. 나주 혁신도시 중심가(반경 700m)에서는 한 달 동안 62만2426명이 카드를 썼다. 공기업 직원이 많은 혁신도시에서는 25세~34세 남성(19.4%·12만594명)이 큰손이었다. 주 고객층은 35세~44세 남성(17.4%), 45세~54세 남성(12.7%) 순으로 나타났고, 유동인구 역시 35세~44세 남성(15.9%)→45세~54세 남성(13.2%)→25세~34세 남성(12.2%) 등이 많았다. 혁신도시에서는 금요일(16.1%·10만299명)에 가장 구매가 많았고, 4개 상권 가운데 야간 구매(11.1%)가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이들 권역의 소비고객 통계는 가맹점 소재지 기준 KB카드 매출과 시장분석업체 나이스지니데이터 자료가 기반이며, 유동인구는 SK텔레콤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남 범죄 피해자 후원금 2000만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왼쪽)은 22일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한전 제공>

광산업진흥회,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수요 조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2000여 광융합산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지원 희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요 조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택트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단편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을 벗어나 국내 광융합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펼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광융합산업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앞서 진흥회는 코로나19로 해외시장 직접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광융합산업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 220여개 기업에 34억원 상당의 직접 지원금을 지원, 해외 현지 바이어 비대면 상담으로 272억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노사, 임단협 타결

잔업 25분 복원·기본급 동결...노조, 29일 찬반 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4주간의 부분파업 등 난항 끝에 올해 임금·단협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부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다. 또 ▲기본급 동결 ▲성급금 150%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미래변화 대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를 통해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에는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전기차 전용 및 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위기극복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상생결제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 센터 등 공정하고 합리

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교섭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임직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외식 감소에 채소값 보험세

쌀·계란·삼겹살 소폭 상승...오이 10개 4000원 올라 상승폭 '최고'

전남지역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돌리면서 달걀 값이 2주 전보다 소폭 올랐다. 22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는 전남 기준 광주 양동시장 주요 농산물 소매가격을 조사한 '얼마오 2022호'를 발행했다. 이날 특란 30개 가격은 4700원으로, 2주 전(4500원)보다 200원(4.4%) 올랐다. 1년 전보다는 500원(9.3%) 오른 가격이다. aT 측은 "추워진 날씨에 AI 확산이 겹치면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달걀 외에 2주일 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은 쌀, 상추, 오이, 호박, 배, 돼지고기 등이다.

상추 100g은 2주 전 500원보다 40% 오른 700원에 팔렸고, 취정오이 10개는 무려 66.7%(4000원) 오른 1만원에 거래됐다. 애호박 1개 가격은 30.0%(300원) 오른 1300원이다. 쌀 20kg 한 포대는 2주 전보다 소폭(400원) 오른 5만7000원이었다. 삼겹살 100g 가격은 5% 오른 2090원으로, 사육 및 도축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김장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김장철 수요가 줄어든 배추 1포기는 2주 전 3500원보다 가격이 14.3% 내린 3000원에 거래됐다. 과일류 대부분은 소비둔화로 큰 폭의 가격변동

없이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 등은 산지 출하조절로 오름세(10개 4만5000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T 관계자는 "가격상승 폭은 제한적이며, 과일류 중 감귤, 딸기 등은 크리스마스 수요증가로 단기간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3.68 (-44.97)
↓ 코스닥	928.73 (-24.85)
↓ 금리(국고채 3년)	0.945 (-0.014)
↑ 환율(USD)	1107.40 (+4.70)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